

문화특종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내장산 행복장터' 개장

정읍시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에 정읍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정읍시내장산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28일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개장식에는 김생기시장장 비롯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복장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기존 노후된 기존 판매장을 철거하고, 지난 7월 착공해 50.4㎡ 규모로 새롭게 건립했다.

행복장터는 앞으로 정읍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정읍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정읍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인 만큼 판매장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여 정읍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화합 한마당 행사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함께하는 2016년 도서관·다문화·청소년 화합 한마당(4차)을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5층 문화교실에서 운영한다.

이 행사는 전주근영여고 전복과학교, 전주교, 호남제일고 한국전통문화고의 수학·과학 동아리, 중국문화 동아리, 요리 동아리 학생들이 김제지역 다문화 어린이 및 관내 초등학생의 멘토가 되어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매년 분기별로 치러지며, 횡수가 거듭될수록 멘토-멘토의 만남이 점점 깊어진다.

올해 네번째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물뽕은 풍선, 차시 주사위, 자석 오리 자동차, 양초로 회전하는 모빌, 안과 바퀴는 통, 낙하산 만들기 DNA 추출하기 등의 체험 활동과 태국 음식인 플루어이탑, 바나나를 등 요리 만들기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인수 시립도서관장은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육·소통·화합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김제지역 아동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42일간)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토양개량제지원관련,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급근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 뿐 아니라 마을 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도권 자전거 동호회 정읍에

30일 '두 발과 두 바퀴로! 사계절 아름다운 정읍을 달린다' 주제로 라이딩

수도권 자전거 동호회(이하 수도권 동호회) 300여명이 가을이 깊어 가는 정읍 관광 라이딩(Riding)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동호회 회원들이 제27회 정읍시문화제 행사기간(28일~30일)인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두 발과 두 바퀴로! 사계절 아름다운 정읍을 달린다'라는 주제로 라이딩 한다.

시는 "자전거 여행 관광 상품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명목화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자전거 동호회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에 개발한 자전거 여행 관광 상품은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정읍시공원에서 내장산국립공원까지 자연형 하천제방길 라이딩 코스와 동학농민기념관과 무성서원, 피향정 등 역사관광 라이딩 코스를 연계한 것이다"며 "자연 경관은 물론 천혜의 단풍이 물든 내장산과 역사테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읍역에 집결하여



여 현역 행사를 가진 후 시내 페레이드를 펼치고 정읍시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점심 식사와 부스 체험 등을 즐길 예정이다.

이어 정읍시공원에서 출발 수준별 코스로 라이딩에 나선다.

초급(자연을 즐기는 팀, 평균 속도 10~15km/h) 코스는 내장저수지→내장산국립공원→정읍어린이교통공원→정읍공설운동장이다.

또 중급(바람을 즐기는 팀, 평균 속도 15~20km/h)은 내장저수지→내장산국립공원→용산저수지→동학농민기념관→정읍공설운동장

코스를, 고급(속도를 즐기는 팀, 평균 속도 20~25km/h)은 내장저수지→내장산국립공원→수정저수지→무성서원→칠보물레미유원지→피향정→정읍공설운동장 코스를 달린다.

김생기 시장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여행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최고 관광도시에 걸맞는 정읍의 이미지를 높임은 물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화축제 '가을 애(愛) 국화 빛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8일 간 부안교 육문화회관 및 중앙공원 등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안에서 가을 국화빛으로 물들다'

국화축제 29일 개막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오복·오강이 가득한 제6회 부안국화축제 '가을 애(愛) 국화 빛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8일간 부안교육문화회관 및 중앙공원 등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안의 농경문화와 국화'를 테마로 이승구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국화올타리 회원이 친 환경 벤처 농업 대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주말시간을 투자해 정성으로 가꾼 입국, 가든덤, 다류작 분 제작 조형작 등 1만 3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야간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화 조형작과 어울려진 LED조명이 설치되는 빛 축제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오는 29일 개막식은 내민들의 축하

와 격려사를 곁들여 생각하고 부안 정명 600년을 맞아 덕담과 빛 점등식 등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부안의 자랑인 부안초등학교 관악대의 관악과 공연과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 공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오색 국화향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화올타리 이승구 회장은 "출품작 모두 회원들이 수천 번의 손길과 정성으로 키워 낸 향기 그윽한 우수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정서함양과 농업소득지원화를 모색하고자 기획했다"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마당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서 마음껏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기관장들, 청탁금지법 실천 서약

부안군 기관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실천을 서약했다.

28일 김종규 부안군수 등 부안군 기관장협의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을 했다.

이 자리에 부안군 기관장들은 이번 서약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실천을 솔선수범해 청렴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군 기관장들은 많은 군민들이 청탁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청렴

문화 구현 및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각 기관 내 청렴 문화 의지 향상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 공직자는 물론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청렴 실천 서약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서약은 청렴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 부안군 기관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다짐한 것"이라며 "부안군 기관장들은 물론 전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법의 취지인 '청렴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사회단체인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새만금 코리아 김제시지부 주관으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 대 청결 행사를 가졌다.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환경정비활동

김제시, 1000여명 참여 행사

김제시 사회단체인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새만금 코리아 김제시지부 주관으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새만금2호 방조제에서 국토 대 청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새만금 2호 방조제 시점부터 가덕도부터 이견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시민이 비탈선터까지 7.8km의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김제시 기관·사회단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2호 방조제 구간별로 국토 대 청결 행사를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관할로 지적 등록된 2호 방조제에 대해 대 청결 운

동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만금 중심 도시 김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행사장인 비탈선터 내측으로 방조제에서 김제 진봉면 심포까지 동서 2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외측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가 완공되어 행사에 참석해 김제시민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직접 보면서 앞으로 김제시와 연계되어 김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김제인이 이루어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한 결정으로 김제가 명실 공히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되었다고 시민의 참여에 감사함을 표명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관광홍보 전시관 위탁운영 위한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8일 오전 11시 호남고속도로 정읍(순천방향)휴게소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읍 관광홍보 전시관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정읍(순천방향)휴게소 내 기존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정읍시에 무상 제공하고 시는 이 공간을 관광홍보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정읍의 대표 관광자원을 홍보 전시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휴게소 방문객

들에게 정읍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수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정읍 관광 홍보 전시관의 성공적인 운영, 지역 관광 홍보와 상호 교류 협력 가능 분야 지속 발굴·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고속도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필요 사항 지원 등 상호협력하게 된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정읍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과 축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읍 관광홍보 전시관을 우리 시 대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관이자 정읍 관광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문명국 전북본부장은 "정읍시 관광 산업 발전과 고속도로 이용 고객에게 감성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관광 연계 활동을 통해 공기업에 걸맞는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읍 관광 홍보 전시관 위탁운영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정읍시가 상호협력 필요 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성덕면, 악조건인 기상여건에 경관작물 재배촉진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성순)은 올해 10월 들어 태풍 차바와 불규칙한 기상여건으로 경관작물인 헤이라베치와 보리 등의 파종이 어려워지자 28일 면장실에서 관내 소속산, 대석, 남포동별 3개 경관보전단지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관작물 식재를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쌀값 폭락 및 잦은 비

로 인한 수확 차질을 겪고 인한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논바닥이 말라야 벼 수확을 끝내고 이달 안에 우리지역의 경관작물인 보리와 헤이라베치의 파종을 시작 할 수 있는데 잦은 비로 차질이 발생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관작물의 파종 생육의 어려움(습해 피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에 노력하고 있으나 파종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적더라도 경관조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 말까지는 파종이 가능하므로 기후가 좋아져 파종을 할 수도 있고 대체작물인 이타라베치에 파종을 파종하는 방안과 내년 3월에 파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